

# 한판 붙자는 윤석열의 선전포고에 맞서자! 윤석열 즉시 퇴진을 위해 거리로 나서자!

12월 12일 오전 쿠데타 미수범 윤석열이 대국민담화에서 퇴진 운동에 나선 백만 명, 퇴진을 지지하는 수천만 명과 한판 붙자는 선전포고를 했다. 공교롭게도 전두환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날이다.

윤석열은 선관위 선거 개입 음모를 내세우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단과 우파를 향해 흔들리지 말고 총단결해, 민주당, 좌파, 친민주주의 시민 등과 맞서 싸우자고 호소하는 것이다. 심지어 2차 계엄도 가능하다는 협박으로도 읽힌다.

윤석열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때 한 말을 거의 똑같이 (선관위 서버 얘기 빼고) 되풀이하고서, 자신에 대한 반대를 “광란의 칼춤”이라고 했다.

이런 자가 여전히 군통수권을 쥐고 있고, 쿠데타 동조자들이 정부·여당과 군부에 즐비하다. 윤석열 정권 자체를 끝장내야 한다. 박근혜 탄핵 때도 국방부는 친위 쿠데타를 모의했다.

이번 발표로 더욱 분명해 진 것은 윤석열을 즉시 몰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우리의 저항은 계속돼야 하고 훨씬 커져야 한다.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야 한다.

## 윤석열을 몰아낼 힘은 우리에게 있다

윤석열과 일당을 몰아낼 진정한 힘은 노동자와 학생 등 평범한 사람들의 투쟁에 있다.

12월 3일 심야에 맨몸으로 계엄군에 맞선 시민들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주역이다.

1960년 4월혁명, 1979년 부마항쟁, 1980년 광주항쟁, 1987년 6월항쟁과 7·8월 노동자 대투쟁, 그리고 2016년 박근혜 퇴진 운동까지 보통 사람들의 투쟁이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확대해 왔다.

윤석열의 쿠데타 시도는 우리 대학생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

서울대에 이어 고려대에서 학생들이 학생총회를 성사시키고 윤석열에 맞설 것을 결의했다. 여러 대학이 학생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전국 수많은 대학들에서 시국선언 물결이 일었다. 학내 게시판은 윤석열 퇴진 대자보로 뒤덮이고 있다.

학생들의 분노는 캠퍼스 밖으로도 번지고 있다. 지난 토요일 국회의사당 앞 100만 명 집회와 매일 저녁 열리는 퇴진 집회 참가자의 상당수가 학생들이다.

학생들은 퇴진 운동에 강렬한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응원봉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는 학생들을 보면서, 중장년층과 노동자들은 큰 힘을 얻고 있다.

거꾸로 윤석열 퇴진 운동은 우리 대학생들을 고무하고 있다.

동덕여대 학생 650명이 지난 11일 학내 시위를 벌이며 투쟁을 재개했다. 동덕여대 학생들의 승리는 퇴진 운동에 나선 학생들에게도 고무적인 소식이 될 것이다. 동덕여대 학생들의 투쟁을 응원한다.

한동훈 등 우파는 동덕여대 학생들의 본관 점거 투쟁을 맹비난한 바 있다. 반정부 대학생 정서가 대규모 행동으로 비화할까 봐 전전긍긍했던 것이다.

학생들의 투쟁은 힘이 있다. 1960년 4월혁명과 1987년 6월항쟁에서 대학생들의 투쟁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 구실을 했다.

그 힘을 발휘해 윤석열과 쿠데타 동조자들을 날려버리자. 학내와 거리에서 윤석열 퇴진 운동에 함께 나서자!

2024년 12월 12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을  
팔로우하세요!



@ws.youthstu @ws.youthstu @ws\_youthstu  
010-5443-2395 https://youth.ws.or.kr youth@ws.or.kr

윤석열 대통령 불법계엄 규탄 및 퇴진 요구를 위한  
전국 대학생 총결기 집회

12월 13일(금) 오후 6시 /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일대  
주최: 비상계엄대응을 위한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촛불 대행진

12월 14일(토) 오후 3시 /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주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한편 불자는 윤석열의 선전포고에 맞서자! 윤석열 즉시 퇴진을 위해 거리로 나서자!

12월 12일 오전 쿠데타 미수범 윤석열이 대국민담화에 서 퇴진 운동에 나선 백만 명, 퇴진을 지지하는 수천만 명과 한판 불자는 선전포고를 했다. 공교롭게도 전두환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날이다.

윤석열은 선관위 선거 개입 음모를 내세우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단과 우파를 향해 흔들리지 말고 총단결해, 민주당, 좌파, 친민주주의 시민 등과 맞서 싸우자고 호소하는 것이다. 심지어 2차 계엄도 가능하다는 협박으로도 위협한다.

윤석열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때 한 말을 거의 똑같이 (선관위 서버 얘기 빼고) 되풀이하고서, 자신에 대한 반대를 “광란의 칼춤”이라고 했다.

이런 자가 여전히 군통수권을 쥐고 있고, 쿠데타 동조자들이 정부·여당과 군부에 즐비하다. 윤석열 정권 자체를 끝장내야 한다. 박근혜 탄핵 때도 국방부는 친위 쿠데타를 모의했다.

서울대에 이어 고려대에서 학생들이 학생총회를 성사 시키고 윤석열에 맞설 것을 결의했다. 여러 대학이 학생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전국 수많은 대학들에서 시국선언 물결이 일었다. 학내 게시판은 윤석열 퇴진 대자보로 뒤덮이고 있다.

학생들의 분노는 캠퍼스 밖으로도 번지고 있다. 지난 토요일 국회의사당 앞 100만 명 집회와 매일 저녁 열리는 퇴진 집회 참가자의 상당수가 학생들이다.

학생들은 퇴진 운동에 강렬한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응원봉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는 학생들을 보면서, 중장년층과 노동자들은 큰 힘을 얻고 있다.

거꾸로 윤석열 퇴진 운동은 우리 대학생들을 고무하고 있다.

동덕여대 학생 650명이 지난 11일 학내 시위를 벌이며 투쟁을 재개했다. 동덕여대 학생들의 승리는 퇴진 운동에 나서는 학생들에게도 고무적인 소식이 될 것이다. 동덕여대 학생들의 투쟁을 응원한다.

이번 발표로 더욱 분명해진 것은 윤석열을 즉시 몰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우리의 저항은 계속되어야 하고 훨씬 커져야 한다.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야 한다.

## 윤석열을 몰아낼 힘은 우리에게 있다

윤석열과 일당을 몰아낼 진정한 힘은 노동자와 학생 등 평범한 사람들의 투쟁에 있다.

12월 3일 심야에 맨몸으로 계엄군에 맞선 시민들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주역이다.

1960년 4월혁명, 1979년 부마항쟁, 1980년 광주항쟁, 1987년 6월항쟁과 7·8월 노동자 대투쟁, 그리고 2016년 박근혜 퇴진 운동까지 보통 사람들의 투쟁이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확대해 왔다.

윤석열의 쿠데타 시도는 우리 대학생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

한동훈 등 우파는 동덕여대 학생들의 본관 점거 투쟁을 맹비난한 바 있다. 반정부 대학생 정서가 대규모 행동으로 비화할까 봐 전전긍긍했던 것이다.

학생들의 투쟁은 힘이 있다. 1960년 4월혁명과 1987년 6월항쟁에서 대학생들의 투쟁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에 결정적 구실을 했다.

그 힘을 발휘해 윤석열과 쿠데타 동조자들을 날려버려라. 학내와 거리에서 윤석열 퇴진 운동에 함께 나서자!

2024년 12월 12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을  
팔로우하세요!



@ws.youthstu @ws.youthstu @ws.youthstu

010-5443-2395 https://youth.ws.or.kr youth@ws.or.kr

윤석열 대통령 불법계엄 규탄 및 퇴진 요구를 위한  
전국 대학생 총궐기 집회

12월 13일(금) 오후 6시 /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일대

주최: 비상계엄대응을 위한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법국민총발 대행진

12월 14일(토) 오후 3시 /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주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한판 붙자는 윤석열의 윤석열 즉시 퇴진을

12월 12일 오전 쿠데타 미수범 윤석열이 대국민담화에 서 퇴진 운동에 나선 백만 명, 퇴진을 지지하는 수천만 명과 한판 붙자는 선전포고를 했다. 공교롭게도 전두환 신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킨 날이다.

윤석열은 선관위 선거 개입 음모를 내세우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단과 우파를 향해 흔들리지 말고 총단결해, 민주당, 좌파, 친민주주의 시민 등과 맞서 싸우자고 호소하는 것이다. 심지어 2차 계엄도 가능하다는 협박으로도 읽힌다.

윤석열은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때 한 말을 거의 똑같이 (선관위 서버 얘기 빼고) 되풀이하고서, 자신에 대한 반대를 “광란의 칼춤”이라고 했다.

이런 자가 여전히 군통수권을 쥐고 있고, 쿠데타 동조자들이 정부·여당과 군부에 즐비하다. 윤석열 정권 자체를 끝장내야 한다. 박근혜 탄핵 때도 국방부는 친위 쿠데타를 모의했다.

# 의 선전포고에 맞서자! 위해 거리로 나서자!

서울대에 이어 고려대에서 학생들이 학생총회를 성사시키고 윤석열에 맞설 것을 결의했다. 여러 대학이 학생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전국 수많은 대학들에서 시국선언 물결이 일었다. 학내 게시판은 윤석열 퇴진 대자보로 뒤덮이고 있다.

학생들의 분노는 캠퍼스 밖으로도 번지고 있다. 지난 토요일 국회의사당 앞 100만 명 집회와 매일 저녁 열리는 퇴진 집회 참가자의 상당수가 학생들이다.

학생들은 퇴진 운동에 강렬한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응원봉을 흔들며 구호를 외치는 학생들을 보면서, 중장년층과 노동자들은 큰 힘을 얻고 있다.

거꾸로 윤석열 퇴진 운동은 우리 대학생들을 고무하고 있다.

동덕여대 학생 650명이 지난 11일 학내 시위를 벌이며 투쟁을 재개했다. 동덕여대 학생들의 승리는 퇴진 운동에 나서는 학생들에게도 고무적인 소식이 될 것이다. 동덕여대 학생들의 투쟁을 응원한다.

이번 발표로 더욱 분명해진 것은 윤석열을 즉시 몰아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우리의 저항은 계속되어야 하고 훨씬 커져야 한다.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야 한다.

## 윤석열을 몰아낼 힘은 우리에게 있다

윤석열과 일당을 몰아낼 진정한 힘은 노동자와 학생 등 평범한 사람들의 투쟁에 있다.

12월 3일 심야에 맨몸으로 계엄군에 맞선 시민들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주역이다.

1960년 4월혁명, 1979년 부마항쟁, 1980년 광주항쟁, 1987년 6월항쟁과 7·8월 노동자 대투쟁, 그리고 2016년 박근혜 퇴진 운동까지 보통 사람들의 투쟁이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확대해 왔다.

윤석열의 쿠데타 시도는 우리 대학생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 불법계엄 규탄 및 퇴진 요구를 위한 전국 대학생 총궐기 집회

12월 13일(금) 오후 6시 /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일대

주최: 비상계엄대응을 위한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

한동훈 등 우파는 동덕여대 학생들의 본관 점거 투쟁을 맹비난한 바 있다. 반정부 대학생 정서가 대규모 행동으로 비화할까 봐 전전긍긍했던 것이다.

학생들의 투쟁은 힘이 있다. 1960년 4월혁명과 1987년 6월항쟁에서 대학생들의 투쟁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에 결정적 구실을 했다.

그 힘을 발휘해 윤석열과 쿠데타 동조자들을 날려버리자. 학내와 거리에서 윤석열 퇴진 운동에 함께 나서자!

2024년 12월 12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을  
팔로우하세요!



📷 @ws.youthstu    📘 @ws.youthstu    ✖ @ws\_youthstu

☎ 010-5443-2395    🌐 <https://youth.ws.or.kr>    ✉ youth@ws.or.kr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촛불 대행진

12월 14일(토) 오후 3시 /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

주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